Korean J Food Cook Sci
Vol. 32, No. 6, pp. 754~761 (2016)

pISSN 2287-1780
eISSN 2287-1772
https://doi.org/10.9724/kfcs.2016.32.6.754

조리외식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효과

김남근 · 김종효†
세종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

Effects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jor Selection Motive and Work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am-Geun Kim · Jong-Hyo Kim†
Depart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Seoul 05006,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jor selection motive and work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ethods:** Survey comprising total 53 questions including 8 for major selection motive, 8 for work value, 6 for major satisfaction, 20 for career search efficacy, 5 for career exploration was distributed to 400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or foodservic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ver. 21.0). Organization of concept and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advanced study and database is essential. Research model based on the theory and analysis of the extracted data was established; and subsequently, the proof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were analysed. **Result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only intrinsic work values among personal motivation and work values were significant. This is because personal motivation and intrinsic work values are related to subjects' aptitudes, interests, talents, and future professions when students choose their majors. Therefore, interest, abilities, achievement, high understanding, and satisfactory schooling are important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has newly expanded the research on career search behavior to include psychological factors and cognitive and attitudinal factors. We also determined competitive operations that enhanc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ien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major selection motive, work value

Ⅰ. 서 론

2014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70.9%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였지만, 취업률은 33.5%에 불과하였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4).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나날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연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 저하와 같은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Han YJ & Lee JH 2013). 201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대졸이상의 실업자가 약 50만 명이 넘었으며 실업률이 4.4%에 해당되고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청년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높은 요인 중의 하나는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5년 4월 기준 비경제 활동인구는 1,597만 1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695만 4천명의 59.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 Korea 2015).

†Corresponding author: Jong-Hyo Kim, Depart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qngjin-gu, Seoul 05006,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2-1526-6747
Tel: +82-70-8866-5130, Fax: +82-31-276-7233, E-mail: hjh099@hanmail.net

http://www.ekfcs.org
© 2016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또한, 2009-2010년 한국교육 종단조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으로 취업 도움(27.4%), 성적(17.2%)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과 선택 결정요인으로 흥미·적성(72.0%), 취업 도움(18.0%), 성적(5.3%) 순으로 조사되어 취업이 학생들의 대학과 전공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 Korea 2013).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은 학과전공 선택에 있어 취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수능 성적에 의해 학과 전공을 결정한 사례가 조사되었다(Lee GN & Jyung CY 2009, Jo SJ 2010).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최근 대학이나 전공 선택에 있어 학문적 이론보다는 졸업 후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고학력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을 하지 않고(Son YH 2010),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설정과 적성에 맞는 취업목표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MJ 등 2009).

2년 전 한 대학 연구소에서 전국 4학년 이상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0.5%가 입사원서를 작성하는 중 전공 선택을 후회한 경험을 했고 특히 응답자의 61.0%(244명)는 휴학이나 졸업유보를 통해 취업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 해당 전공에 대한 탐색과 이해 그리고 장래직업과 전공과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리한 취업조건이나 성적, 주변의 권유에 이끌려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진학 후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흥미를 잃고 전과 또는 자퇴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Kim MS 등 2010). 전공은 개인의 장래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졸업 후 선택할 직업이 불일치하면 학업 부적응이나 전공 불만족과 같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한다. 즉, 대학생활에 있어 전공 불만족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in HJ & Yoon HK 2009).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공 만족을 야기하며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진로에 대한 탐구행동을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빠른 경제개방으로 인해 정치·문화·경제 등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시여기는 측면 등의 직업 가치관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나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나 직업 포부, 그리고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고(Lee O 1993, Kim JS 2006),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나 진로탐색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Kim MS 등 2010). 선행연구에서도 직업가치관은 전공 관련된 직업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Park HS 2011). 또한 청년층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이나 진로탐색행동 관련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진로탐색행동 및 효과와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Lee JK & Kim DI 2004, Lee JY 등 2005). 그러나 기존의 구직행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재 취업자 혹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Lee SR 2000, Lee BH 2002, Ahn SS등 2005),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측정도구개발이나 비교·실태분석 위주로 연구되고 있을 뿐(Au YK 등 2011), 학생들의 장래직업과 관련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Kim BW & Kim KH 1997).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별도의 취업시험을 거쳐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준비의 행동적 측면은 의사결정, 즉 인지적 영역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Kim GH 2001).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전공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중의 하나인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직업선택의 어떤 측면이 중요하는가와 같은 직업가치관과 심리적 변인인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직업과 관련된 여러 측면이 포함된 인지·태도 변인인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율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관련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관련된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과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리·외식전공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설정을 도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표본대상은 조리·외식 관련 전공 2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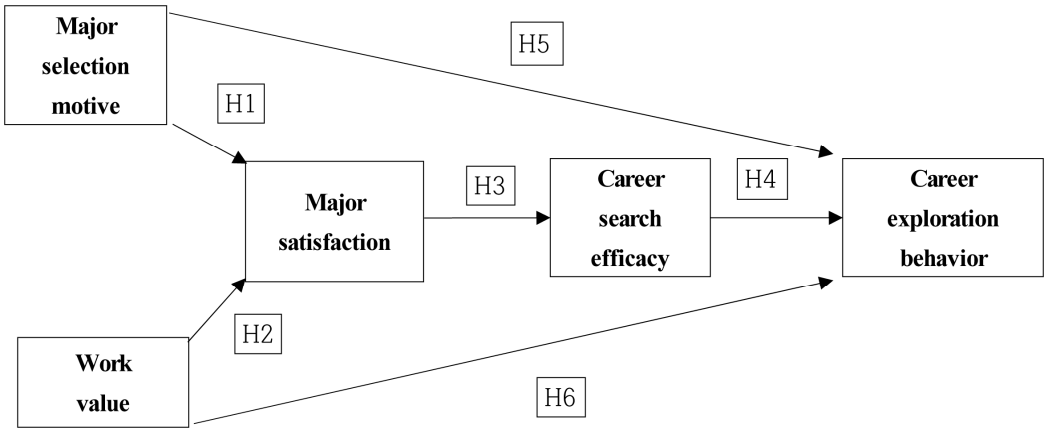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고, 총 4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42부로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 설정[H1]은 전공선택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n YJ & Lee JH 2013)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다.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 설정[H2]은 직업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직업가치관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Au YK 등 2011)를 기초로 하여 명예나 보수를 중요시 여기는 외재적 직업가치관을 가진 학생들보다 흥미, 적성, 능력발휘나 성취감을 중요시 여기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율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H3] 설정은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탐색효율에 높아지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eong HY & Park OL)를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진로탐색 자기효율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Solberg VS 등 1995), 진로탐색 자기효율이 진로탐색과 진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의하다고 설명하였다(Choi OH & Kim BW 2007).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효율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가설[H4]을 설정하였다. 전공선택동기와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전공선택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n YJ & Lee JH 2013) 등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5]을 설정하였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모든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n YJ & Lee JH 2013) 등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6]을 설정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로 2개요인 8문항, 직업가치관은 외재적직업가치관과 내재적직업가치관의 2개 하위요인 8문항, 전공만족도는 단일요인의 6문항, 진로탐색효율은 면접효율, 직업탐색효율, 관계구축효율, 개인적탐색효율 4개 하위요인 20문항, 진로탐색행동은 단일요인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직각회전인 베리맥스법(varimax)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 과정에 있어 아이겐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 측도(Kaiser-Mayer-Olkin measure)와 Bartiett의 구형성 검증(Barti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측도가 0.5보다 크고, Bartiett의 구형성 검정이 유의적이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Lee HS & Lim JH 2011). 측정 개념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내적인 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Chung CY & Choi LG 2011).

3. 통계 분석

본 연구 설문의 최종분석은 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 5가지 변수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본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전공에 따라 측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두 개 이상 집단의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측정요인에 따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각 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38명(40.3%), 여학생은 204명(59.7%)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 구성으로는 1학년이 209명(61.1%), 2학년이 133명(38.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공유형에서는 조리관련 전공이 258명(75.4%), 외식관련 전공이 84명(24.6%)으로 외식관련 전공학생보다 조리관련 전공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13명(6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고졸 이하가 286명(8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분류에서는 무직과 전문기술직, 행정직(공무원), 사무 및 관리직, 생산직, 판매종사자(영업직), 서비스 종사자, 농·축·임·수산업 종사자로 분류하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기술직이 188명(5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이 115명(33.6%), 서비스 종사자가 111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월소득 201-30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9명(3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과정 중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문항이 없어 요인분석한 후 전공선택동기는 개인적 동기 4문항, 사회적 동기 4문항의 2가지 요인으로,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직업가치관 4문항과 외재적 직업 가치관 4문항의 2가지 요인으로, 전공만족도는 6문항, 진로탐색효율은 면접효율, 직업탐색효율, 관계구축효율, 개인적 탐색효율 4개 하위요인 20문항, 진로탐색행동은 5문항으로 아이겐 값이 1 이상이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에 적용가능성을 의미하는 KMO 값은 0.5보다 크게 나타난 0.772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1.261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42)

Category		n	Percentage (%)
Gender	Male	138	40.3
	Female	204	59.7
Grade	1	209	61.1
	2	133	38.9
Major	Culinary	258	75.4
	Foodservice	84	24.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213	62.3
	College (2 yr)	72	21.1
	University (4 yr)	54	15.8
	Graduate school	3	0.8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286	83.6
	College (2 yr)	44	12.9
	University (4 yr)	12	3.5
	Graduate school	0	0
Father's occupation	Not employed	7	2.0
	Professional	188	55.0
	Public worker	24	7.0
	Office worker	21	6.1
	Production worker	39	11.4
	Sales	18	5.3
	Service	43	12.6
	Farmer	2	0.6
Mother's occupation	Not employed	115	33.6
	Professional	6	1.8
	Public worker	7	2.0
	Office worker	31	9.1
	Production worker	40	11.7
	Sales	30	8.8
	Service	111	32.5
	Farmer	2	0.6
Monthly income (KRW 10,000)	>100	8	2.3
	<101-200	90	26.3
	<201-300	109	31.9
	<301-400	100	29.2
	<401-500	32	9.4
	501<	3	0.9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Construct	Factor loading	Cumulative (%) (Eigen value)	Crombach's α
Personal motivation (4)	Individuality	0.693	9.393 (2.912)	0.801[1)]
	Interest	0.602		
	Talent	0.577		
	Job	0.567		
Social motivation (4)	Popularity of major	0.542		
	Social recognition	0.521		
	Neighborhood advice	0.501		
	School grades	0.743		
External career values (4)	Salary	0.783	9.066 (2.810)	0.808
	Honor	0.762		
	Economic stability	0.742		
	Working environment	0.656		
Intrinsic career values (4)	Ability demonstration	0.595		
	Achievement	0.574		
	Community service	0.643		
	Aptitude	0.543		
Major satisfaction (6)	satisfactory	0.839	26.689 (2.766)	0.765
	affordable	0.829		
	Proud	0.714		
	Major fits well	0.701		
	Interests in curriculum	0.684		
	Worth learning	0.661		

1) KMO-Bartlett measure = 0.772, df = 465, total variance = 61.261%, Chi-square approximation = 5019.296, $^{***}p$=0.000.

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Construct	Factor loading	Cumulative (%) (Eigen value)	Crombach's α
Interview efficiency (5)	Make resume	0.872	8.703 (2.698)	0.745[1)]
	Character judgement	0.820		
	Information	0.786		
	Estimate preference	0.711		
	Chat with interest job group	0.541		
Job search efficiency (6)	Technology utilization	0.748		
	Understand job skills	0.684		
	Refine career goals	0.647		
	Solving difficulty	0.623		
	Occupational alternatives survey	0.590		
	Social barriers	0.542		
Relationship building efficiency (5)	Participation in career development activities	0.714		
	Using relationships	0.663		
	Leverage employment opportunities	0.584		
	Job plan	0.526		
	Help with employment	0.489		
Personal search efficiency (4)	Personal ability assessment	0.812		
	Work value evaluation	0.745		
	Personal value review	0.667		
	Personal value assessment	0.531		
Career search behavior (5)	Sign up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0.756	7.410 (2.297)	0.727
	Language study	0.663		
	Credit management	0.658		
	Career preparation	0.643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0.518		

1) KMO-Bartlett measure = 0.772, df = 465, total variance = 61.261%, Chi-square approximation = 5019.296, $^{***}p$=0.000.

3.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측정요인 간의 차이 분석

1) 전공과 측정요인간의 *t*-test 분석 결과

전공과 측정요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에 따라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p<0.01$,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사회적 동기, 진로탐색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동기와 면접효율, 직업탐색효율, 관계구축효율, 개인적탐색효율은 $p<0.001$, 전공만족도는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직업가치관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2) 학년과 측정요인 간의 분산분석 결과

학년과 측정요인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학년에 따라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p<0.05$에서, 개인적 동기는 $p<0.001$에서, 사회적 동기와 면접효율, 직업탐색효율, 관계구축효율, 개인적 탐색효율은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최대관심사인 취업과 관련된 현장실무 중심의 실기수업을 많이 경험하였고, 취업에 관심이 많으므로 전공만족도나 진로탐색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의 월소득과 측정요인 간의 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월소득과 측정요인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개인적 동기와 전공만족도는 $p<0.01$에서, 진로탐색행동과 개인적탐색효율은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 사회적 동기, 면접효율, 직업탐색효율, 관계구축효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는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Chang GH 2008)와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보다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내재적 직업가치관(M=4.25)과 개인적 동기(M=4.42), 전공만족도(M=4.72), 면접효율(M=3.65), 직업탐색효율(M=3.53), 개인적탐색효율(M=4.21), 진로탐색행동(M=4.1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동기 부여, 즉 부모님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공만족도도 높아질 뿐

Table 5. ANOVA between of grade and factors

Factor	Grade 1	Grade 2	*F*-value	*p*-value
Personal motivation	3.92	3.64	12.505	0.000***
Social motivation	2.78	2.82	5.963	0.003**
External career values	3.67	3.76	3.383	0.035*
Intrinsic career values	3.91	3.99	1.171	0.311^{NS}
Major satisfaction	3.83	3.73	2.064	0.128^{NS}
Interview efficiency	3.30	3.15	4.847	0.008**
Job search efficiency	2.83	2.91	5.564	0.002**
Relationship building efficiency	2.62	2.72	5.992	0.005**
Personal search efficiency	2.93	3.08	6.322	0.006**
Career search behavior	3.27	3.34	0.914	0.402^{NS}

^{NS} $p>0.05$, $^{*}p<0.05$, $^{**}p<0.01$, $^{***}p<0.001$.

Table 4. *t*-test between of major and factors

Factor	Major		*t*-value	*p*-value
	Culinary	Foodservice		
Personal motivation	3.93±.69[1)]	3.52±.80	7.050	0.000***
Social motivation	2.78±.78	2.64±.70	1.871	0.062^{NS}
External career values	3.66±.69	3.87±.63	-2.952	0.003**
Intrinsic career values	3.95±.59	3.96±.53	-.141	0.888^{NS}
Major satisfaction	3.82±.68	3.67±.61	2.446	0.015*
Interview efficiency	3.41±.68	3.05±.64	4.219	0.000***
Job search efficiency	3.78±.63	3.51±.58	5.213	0.000***
Relationship building efficiency	3.62±.54	3.83±.43	6.842	0.000***
Personal search efficiency	3.91±.51	3.56±.62	6.924	0.000***
Career search behavior	3.31±.69	3.32±.67	0.032	0.975^{NS}

[1)] Mean±SD.
^{NS} $p>0.05$, $^{*}p<0.05$, $^{**}p<0.01$, $^{***}p<0.001$.

Table 6. ANOVA between of monthly income and factors (KRW 1,000)

Factor	Salary							
	>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	*F*-value	*p*-value
Personal motivation	4.42	3.86	3.77	3.71	3.92	3.54	3.383	0.005**
Social motivation	2.39	2.82	2.81	2.72	2.65	2.70	0.849	0.515NS
External career values	3.79	3.79	3.66	3.75	3.80	3.77	0.485	0.788NS
Intrinsic career values	4.25	3.98	3.90	3.94	3.99	3.99a	0.887	0.489NS
Major satisfaction	4.72	3.81	3.68	3.75	3.84	3.75	3.212	0.007**
Interview efficiency	3.65	3.33	3.14	3.19	3.48	3.40	0.862	0.507NS
Job search efficiency	3.53	3.47	3.11	3.24	3.50	3.38	0.821	0.467NS
Relationship building efficiency	2.47	2.54	2.83	2.72	2.64	2.50	0.832	0.522NS
Personal search efficiency	4.21	3.81	3.43	3.55	3.62	3.47	5.432	0.000***
Career search behavior	4.13	3.70	3.32	3.38	3.53	3.50	5.238	0.000***

NS $p>0.05$, * $p<0.05$, ** $p<0.01$, *** $p<0.001$.

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행동 역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리·외식관 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인인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그리고 인지·태도적 변인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행동적 변인인 진로탐색행동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조리외식 관련 학과 운영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효율,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지역 조리외식관련 전공 대학에 재학 중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총 4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42부로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는 SPSS Statistics (ver. 21.0)를 이용하였고,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차이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인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그리고 인지·태도적 요인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을 추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확장하였다. 둘째,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동기, 직업가치관 중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생활에의 적극적인 진로탐색효율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학생들에게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전공만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학과운영 측면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을 입시면접과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경쟁력 있는 학과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과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진로탐색행동에 따른 취업성과 또는 직업선택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본 연구를 구조화 하는데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따른 취업성과와 직업선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각 변수들의 측정문항이 제한적이어서 각 변인들의 측정도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조리·외식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시 조리·외식 관련 전공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졸업생들도 추가하여 연구하고 조리·외식관련 특목고 출신 여부 및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Ahn SS, Shin KH, Hahn YS, Tak JK, Yoo TY. Han TY, Hwang JO. 2005.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unemployment and job search intensity. Korean J Woman Psychol 10(3):375-404.

Au YK, Kim DI, Chung YJ, Lee JY. 2011.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s. Korea Educ Rev 17(3):267-291.

Chang GH. 2008. A study on the work values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clothing and textiles major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Cloth Text 32(1):110-122.

Choi OH, Kim BW. 2007.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style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8(3):1063-1084.

Chung CY, Choi LG. 2011.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WIN. Muyokpub, Seoul, Korea. p 139.

Han YJ, Lee JH. 2013.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Korean J Culin Res 19(2):76-92.

Jeong HY, Park OL. 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 Korea Soc Beauty Art 10(1):35-49.

Jin HJ, Yoon HK. 2009.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confidence in and satisfaction with major on choosing major-related career. J Sport Leisure Stud 37(1): 45-52.

Jo SJ. 2010.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s' centered education. Int J Adult Contin Educ 13(3):111-151.

Kim BW, Kim K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Psychother 9(1):311-333.

Kim GH. 2001.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Hakjisa, Seoul, Korea. p 244.

Kim JS. 2006. A study on job val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 Korean Youth 17(17):79-102.

Kim MS, Park SM, Wang C, Seo HY, Joo YJ, Lee KY, Choi ES. 2010.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ccupation for EMT students. J Korean Soc Emerg Med Technol 14(3):29-40.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4. 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kess.kedi.re.kr/index. Accessed October 23, 2016.

Lee BH.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factors affection job search behavior. Korean Labor Econ Assoc 25(1):1-21.

Lee GN, Jyung CY. 2009.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 Agric Educ Hum Resour Dev 41(1):87-110.

Lee HS, Lim JH. 2011. SPSS 16.0 manual book. Bobmunsa, Gyeonggi, Korea. p 143.

Lee JK, Kim DI. 200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Korean J Couns 5(4):993-1016.

Lee JY, Chang JY, Kim MU. 2005.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job search behavior and employment among college senior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1(1):1-23.

Lee O. 1993. Job concept recognition and job value research of Korean student youth. Korea Inst Youth Dev 15:32-44.

Lee SR. 2000.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in Korea. Korean J Soc Welf 43:299-327.

Park HS. 2011. A study on the work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management. Korean J Health Serv Manag 5(4):95-111.

Park MJ, Kim JH, Jung MS.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 Couns 10(1):417-435.

Solberg VS, Good GE, Fisher AR, Brown SD,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 Couns Psychol 42(4):448-455.

Son YH. 2010.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 Soc Sci 29(1):235-253.

Statistic Korea. 2013. Result and problems of Korea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334008&inputYear =. Accessed November 10, 2014.

Statistic Korea. 2015.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April 201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35876. Accessed May 13, 2015.

Received on Dec.9, 2016/ Revised on Dec.12, 2016/ Accepted on Dec.12, 2016